

비즈프리즘 | 삼성전자부터 SKT·우리은행까지...공동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전자증명 시대 개막

이통·금융 블록체인 전자증명 협력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필요시 제출 대학 졸업·성적증명 등에 우선 적용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신분 증명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등 7개 사는 공동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원장(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신원을 확인·증명하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탈중앙 식별자(DID) 기반의 ‘자기주권 신원지갑’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삼성전자,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7개사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을 위해 힘을 합쳤다. 개발 중인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 사진제공 | SK텔레콤

서비스를 적용하는 프로젝트이다. 개인이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개인 정보를 스마트폰의 보안 저장 영역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기관과 기업이 보관하던 개인정보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참여 기업들의 설명이다.

7개사는 졸업과 성적증명 등 전국 주요 대학의 각종 증명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코스콤의 스타트업 대상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기 확산을 위해 SK와 LG, KT 그룹사 신인·경력 채용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잡했던 각종 증명서 발부 및 제출 절차가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 과정에서 일일이 문서로 제출하던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모바일 전자 증명 서비스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사들은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 각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채용 시스템과 사원 증명 기반 모바일 출입통제 서비스는 물론 통신 및 금융의 전자서명 및 비대면 사용자 인증 서비스, 병원 및 보험사의 제증명 서비스, 골프장·리조트의 회원권, 학생증명 기반 영화관·놀이공원 할인서비스, 공중·내용증명, 온라인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눈으로 보는 주간 경제 8~12일

코스피지수	2086.66	↓	-23.93
코스닥지수	681.17	↓	-13.00
日 닷케이 지수	2만1685.90	↓	-60.48
中 상하이 종합	2930.55	↓	-80.5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42		0
환율 (원·달러)	1179.00	↑	+7.50
국내금값 (원/그램)	5만3409.53	↑	+148.10

지수는 12일 증가, 등락은 주간 집계.

삼성 내달 20일 '보안기술포럼' 개최
삼성전자는 8월 20일 서울 R&D캠퍼스에서 제3회 삼성보안기술포럼을 개최한다. 삼성리서치에서 보안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시큐리티팀 안길준 팀장(정무)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이 열린다. 올해는 보안기술에 대한 삼성리서치의 연구 활동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세션도 추가됐다. 해킹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킹체험존', 미래 보안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오픈테크토크'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리서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8월 13일까지다.

LG전자 뉴욕 맨해튼서 컬러 체임 마케팅

LG전자는 12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카페 올레드'를 운영했다. 올레드 TV 화질로 팬톤사가 선정한 올해의 여름 컬러를 보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팬톤은 글로벌 컬러 트렌드 전망, 기업들의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컬러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세계적 컬러 연구기업이다. LG전자는 벽에 붙일 수 있는 월페이퍼 디자인의 LG 시그니처 올레드TV W를 비롯해 2019년형 올레드 TV 신제품 10대를 설치했다. 한편 팬톤이 선정한 2019년 여름 컬러는 핑크 피코크와 튜메릭, 아스펜 골드, 페퍼 스템 등 4종이다.

김명근 기자



컬러 체임 USB. 컬러 체임은 팬톤이 선정한 2019년 여름 컬러를 담고 있다. 컬러 체임은 팬톤이 선정한 2019년 여름 컬러를 담고 있다. 컬러 체임은 팬톤이 선정한 2019년 여름 컬러를 담고 있다.

“작고 간편하게” 과일도 미니멀리즘 시대

1인 가구 증가...미니 과일 수요 UP

소포장 수박부터 자두, 체리 등 크기가 작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미니 과일이 각광 받고 있다.

맛별이 가정과 1인 가구가 늘면서 별다른 손질없이 씻어 먹을 수 있는 미니 과일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체리의 경우 매출이 지난해 7.6% 증가했다. 자두 매출 역시 같은 기간 3.4% 늘었다. 역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인 딸기도 1~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6%, 토마토는 20.3% 증가했다. 미니 과일의 인기와 함께 롯데마트는 17일까지 '자두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마트에서는 소포장 수박인 '나혼자 수박'의 6월 매출이 전년보다 87%나 증가했다. 나혼자 수박은 1팩에 600g 내외의 소포장으로 수박을 먹고 싶지만 한 통을 사기는 부담스러운 1인 가구를 겨냥한 기획 상품이다. 1인 가구가 수박 한 통을 한 번에 다 먹기 힘들다는 특성을 고려해 과일



롯데마트의 '자두 페스티벌'(위)과 이마트의 '나혼자 수박'. 사진제공 | 롯데마트·이마트

매장 옆에 수박 반 통을 통째로 넣을 수 있는 전용 보관 용기도 함께 팔고 있다.

이성용 롯데마트 과일팀장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고객들이 찾는 과일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주시해 고객 기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이재용 부회장, 사장단 긴급회의 日 규제 장기화 대비책 마련 지시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진들에게 비상상황을 대비한 전략 마련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일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부회장은 13일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경영진들과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일본 출장 결과를 공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급현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비상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지시하면서,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휴대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분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대비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컬러 스톤 보러 오세요”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명품관이 31일까지 이스트 지하 1층 마스터피스존에서 영국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의 '컬러 스톤 컬렉션' 전시를 진행한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등 그라프 장인들의 기술이 담긴 최고급 보석을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한화 갤러리아

교육·퍼즐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지식인 '에지인' 오픈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쿠키.kr WWW.매직스도쿠.kr

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선택 시 '합격자 수' 확인하자!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전문가로 연령에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꼭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 분야 취업 및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활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연령과 학력에 제한이 없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또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지만, 과락 제도가 있어서 과목별로 40점은 넘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법령 문제와 계산 문제가 있어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득점으로 합격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40문제 중 24문제만 맞히면 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한 공부보다 합격점을 위한 공부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은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까.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합격자 수'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했다.



에듀윌 합격자 수 확인하는 것을 추천했다.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으로 중요한 이유는 많은 합격자를 가진 교육기관일수록 다양한 합격 사례와 빅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인맥과 정보가 중요한 직업만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지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에듀윌은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단일 교육기관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받은 종합교육기관이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수험생과 현업자를 위해 에듀윌 지식인 '에지인'을 오픈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빅데이터를 한곳에 담았다. 시험에 대한 Q&A는 물론 실무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스도쿠문제

6	3				1		9
		5	3		1		2
9				6			8
	6		1			2	
	7	6		3	4		
2			7			1	
	9		3				5
2		7		6	9		
1	3				6	7	

	3			6			1
4		5		9			8
		5		3		2	
	4			2			8
2		9	6		5	1	3
	1			4			5
		6		1		4	
1		4		8			7
	9		5			2	

■ 스도쿠정답

9	2	7	4	5	6	8	3	1
1	8	6	9	8	6	4	7	2
5	7	8	2	8	1	6	9	3
9	1	9	6	7	7	7	8	2
8	6	4	2	9	7	1	7	5
3	2	7	8	1	5	5	6	9
4	8	3	9	9	2	1	7	6
2	7	7	1	6	1	6	4	9
1	5	9	8	2	2	8	2	9
1	2	8	9	5	3	4	6	7
2	5	8	8	6	6	2	2	1
6	7	4	7	1	1	1	8	3
5	7	4	7	1	2	2	7	8
2	7	5	2	4	4	8	9	1
3	1	4	8	9	6	7	2	2
6	7	8	6	1	2	7	7	5
6	7	2	2	4	8	1	1	9
8	8	9	6	7	5	1	2	4
4	1	5	2	9	8	7	2	6